

소공동체 소식

이 페이지는 각 구역이나 신심단체가 새로운 정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직접 꾸미는 '주보 사랑방'입니다

노스브런스워 구역

노스브런스워 구역 이야기

노스브런스워 구역은 좀 특별하다 시니어 구역으로 대부분 같은 노인아파트에 거주하신다. 그래서 어떤일이든 협조가 잘되고, 구역원 상호간의 이해도가 높아서 모두가 친지혹은 이웃같이 친하게 지낸다. 현재 구역원들은 대부분 70세 이상으로 그 총체적인 경륜과 신앙의 깊이는 어느 구역도 따라 올수 없을 만큼 독보적이다. 사진은 2017년 현재 참석했던 구역원들이다.



변태용요셉/변인순 엘리자벳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5:16~18)]

자주는 아니더라도 어쩌다 떠오르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은 자식들 가정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모습이다. 오늘을 감사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일 것이다. 주님은 오늘의 평안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온갖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고 오늘의 지혜와 믿음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좌절과 유혹을 경험하게 하셨다 곰곰 생각해보니 온갖 감사할 일뿐이다. 지나간 세월속에 쌓아온 수많은 일상을 통해 오늘을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김종화 아가다

[나에게.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1코린 13.2)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첫번째도 사랑. 두번째도 사랑. 세번째도사랑" 그러나 나약한 인간으로서 사랑을 실천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그렇지만 실망하지않고 노력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사랑으로 일치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면 성령께서 불꽃되어 제마음에오셔서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으로써 이끌어 주소서.

김귀옥 실비아

저는 중고등학교를 가톨릭 스쿨을 다녔지만 완고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성당에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내 24년 전 스스로 뉴브런스워 성당을 찾아가 영세를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자녀 됨에 가슴이 벅차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듬해 온가족이 주님의 자녀가 되어 성당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3년전 병명도 모른채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때 모든 교우분들의 기도로 건강을 회복할수 있었음에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또 다시 느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테살로니카 오장 16~18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 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를 항상 가슴에 새기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노스브런스워 구역에는 누가 있나요?

- 1 강성기 요셉, 권미령 마리아
- 2 강식 이보, 우헬렌 헬레나
- 3 김삼식 베드로 김귀옥 실비아
- 4 김정이 레지나
- 5 김영필 안토니오, 김종화 아가다
- 6 김인자 로마나
- 7 박상배 스테파노, 박성희 마리아
- 8 박애순 마리안나
- 9 백영숙 헬레나
- 10 변태용 요셉, 변인순 엘리자벳
- 11 성낙순 미카엘라
- 12 양영길 그레고리오, 양정자 카타리나
- 13 우영인 가브리엘, 우선자 이레네
- 14 이기순 세실리아
- 15 이은례 데레사
- 16 하건철 안토니오, 김용무 데레사
- 17 하연승 요한, 하명순
- 18 이막동 아네스

우선자 이레네

[데살로니카 5,16-18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오랜 삶을 살다보니 빼앗긴 나라에서도 살아보고, 동족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난살이도 해보았으나 요즘 세상처럼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기에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성당에 나와서 복음말씀도 듣고 찬양도 드리고 교우들과 사랑 나누며 잘 지낼수있게 허락 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듯 하느님의 말씀대로 기뻐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백영숙 헬레나

이년전 저는 무릎이 아파서 주저앉아 꼼짝도 못하고 옆드려 밥먹고 기어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날 저에게 친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친구가 다가오는 것도 함께 있는것도 부끄럽고 싫었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는 늘 말없이 제 가까이서 발걸음을 옮길 적마다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그친구 와 친해지고 그에게 고마움을 느낄 무렵 내가 홀로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친구의 이름은 지팡이였습니다. 그후 저는 상처난 영혼을 지탱해주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지팡이 같은 삶을 살기로했습니다. 그 친구가 나에게 해 주었던 것 같이 누군가에 친구가되어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지팡이처럼 말입니다.

하연승 요한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마르코 복음 9:23]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저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느님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귀한 아들과 인생을 함께 하는 아내를 위해 그리고 연로하신 어머니 데레사 그리고 아버지 안토니오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크신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주소서, 아멘

**연중
제15주일**

**2022년
7월 10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00AM~3:00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착한 사마리아인>
렘브란트

< 이번 주 전례안내 >

# 제 1독서	신명기30,10-14
# 화답송	시편 69(68),14와 17.30-31.33-34.36 그리고 37(◎ 33 참조) ◎ 가난한 이들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1,15-20
# 복음 환호송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 복음	루카 10,25-37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 성가번호	입당 12 봉헌221 성체 498 파견6

미사지향 (연미사)

- 최복자(레지나) - 가족
- 소형덕(베드로) - 가족
- 오옥순(수산나) - 가족, 오 세실리아
- 이영훈(바오로) - 이정배(마크리나)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오홍순(카타리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박병희 - 김 스텔라
- 광창진(스테파노) - 광 루시아
- 최준혁 - 최 세레나

미사지향 (생미사)

- 유병기(베테딕도) 가정 - 오용덕(헨리코) 가정
- 한상철(빈첸시오), 한종매(안나) - 김순옥(올리아)
- 염은미(클라라) - 가족
- 김성일(베드로), 김리오(레오) - 가족
- 박 크리스티나 - 박 요아킴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미사 참여 135명).....\$1,464		
• 교무금.....\$2,340		
손흥구(4-9)	민규란(7-12)	이순재(5-8)
전광수(7-8)	김영숙(6-7)	박재영(1-6)
황태진(7-8)	백상헌(7)	이승권(1-6)

한컷 묵상



2차 헌금

• 7월 17일 : 유틸리티

6월 부터 미사 시작 10분전부터 삼종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성당 입구에서 성가책을 받으시어 미사 중 함께 성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성모회 주관 테네시 농장 농산물 판매

• 물품 수령일 : 7월 10일 (주일) 미사 전후

예비자 교리반 모집

• 2022년 7월부터 예비자 교리 교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6월 30일까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매일미사 구독 신청(2022년 8월-2023년 7월)

• 일반 매일미사 책 \$66, 대형 매일미사책 \$102
 • 7월 10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계 기간 (7-8월) 사무실 업무시간 변경 안내

• 업무시간 : 오전08:30 - 오후13:30 (화-목)
 • 업무시간 외 용무는 사무장 개인 연락처(732-258-5998)로 연락바랍니다.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및 장소 : 7월 10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

반석회 7월 모임

• 일시 : 7월 23일(토) 오후 12시 30분
 • 장소: 성당 친교실

꼬미시움 주관 레지오 단원 일일 교육

• 일시 및 장소: 7월 31일(주일) 오후 2시-6시, 성당
 • 강사: 미 동북부 레지오 교육 위원회 회장단

2022 Bishop's Annual Appeal

• 2022년 Bishop's Annual Appeal 목표금액 \$35,000을 달성하였습니다. 7/1까지 약정금액은 \$43,502 (목표금액의 124.3%, 135가정 참여)입니다. 목표금액 달성 후 초과금액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됩니다

은혼식, 금혼식 축하 예식

• 메타천 교구 체키오 주교님의 주례로 결혼 25주년, 50주년을 기념하는 혼인갱신식이 있습니다.
 • 일시 : 2022년 10월 30일(주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St. Francis of Assisi메타천 주교좌 성당
 • 온라인 등록 마감: 2022년 10월 7일 (금)
 • 온라인 등록: <http://www.diometuchen.org/silver-and-gold-anniversary-celebration>
 • 연락처: 732-562-1543, amarshall@diometuchen.org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염은미(클라라)	

제 1독서 신명기30,10-14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율법서에 쓰인 그분의 계명들과 규정들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너희에게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지도 않다. 그러나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 또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지도 않다. 그러나 ‘누가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 1,15-20

그리스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만이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만이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루카 복음 10,25-37

그때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추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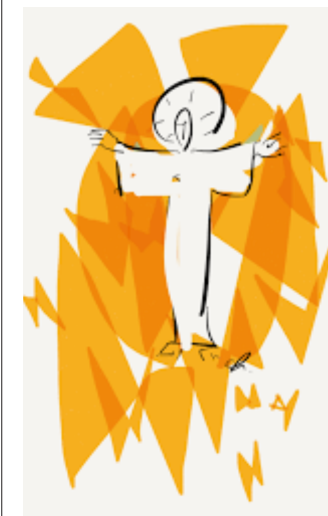
육신의 부활이란 무엇인가요?

Q: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몸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육신의 부활이란 죽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는 건가요?

A: 우선 육신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인간은 영혼과 육신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으며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영혼은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영혼만 부활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도 초세기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을 악의 원천이며 죄로 가득한 덩어리로 보면서 육신은 부활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가짜 육신을 취해서 인간이 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부활을 교회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맞서 우리의 부활이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의 전인적인 부활, 육신까지 포함한 완전한 부활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육신의 부활은 현재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는 육체가 단순하게 재생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997항을 보면 “육신과 영혼의 분리인 죽음으로 사람의 육신은 썩게 되지만 그의 영혼은 하느님을 만나, 영광스럽게 된 그 육신과 다시 결합되기를 기다린다. 마침내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전능으로, 예수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 육신을 우리 영혼에 결합시키심으로써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육신에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부활은 하느님께서 선물로 내어주시는 영적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과 전혀 무관한 어떤 존재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고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마음을 모으는 삶을 살고자 하는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요한 5,29)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루카 24,35-40)

출처: 교리톡톡 신앙쑥쑥(2020. 4. 26.)